

LPGA “유소연은 친절, 관대하고, 영감 주는 선수”



▲ 유소연이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 권대회'에서 우승한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YTV화면 캡처

유소연(30)이 '2020 한국여자오픈' 우승 상금을 전액 기부한 데 대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가 극찬했다.

지난 22일 '윈터뉴스 코리아'에 따르면 유소연은 전날 인천 배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 버디 1개, 보기 1개를 쳐 이븐과

72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친 유소연은 김효주(25·11언더파 277타)를 1타차로 따돌리고 생애 첫 한국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했다.

유소연은 우승 직후 우승상금 전액인 2억5,000만원을 모두 기부한다고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유소연은 우승 전날 기부를 생각했고, 우승 직후 어머니에게 기부 사실을 알리며 흔쾌히 허락을 받았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에 LPGA는 이날 “유소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놀랐겠지만, 그녀를 오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관대한 행동이 전혀 놀랍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유소연의 기부 소식을 전했다.

LPGA는 이어 “올해 LPGA 투어 ISPS 한다빅 오픈 등 2개 대회를 치른 후 상금 일부를 호주 산불 구호기금으로 냈고, 2018년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한 후에도 '마이어 푸드뱅크'에 기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LPGA는 “2009년 중국 여자오픈을 제패한 유소연이 2011년 US 여자오픈, 2014년 캐나다 여자오픈, 2018년 일본 여자오픈, 2020년 한국여자오픈에 이어 브리티시 오픈을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소연은 우승 후 브리티시오픈 우승으로 '6관왕'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PGA는 “유소연은 친절하고, 관대하고, 영감을 주는, 재능 있는, 끈기 있는, 친구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유소연이 아무리 많은 우승컵을 획득해도 '욕심'이라는 단어는 그녀와 관련이 없을 것이다.”라며 유소연을 칭찬했다.

조코비치, 코로나19 확진 ... '미니 투어'서 감염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랭킹 1위인 노바크 조코비치(33·세르비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코비치는 전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 조코비치가 아드리아 투어 2차 대회에서 백핸드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코비치는 최근 ATP 투어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황에서 아드리아 투어라는 미니 투어를 기획, 13일부터 이틀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1차 대회를 치렀고 20일부터 이틀간은 크로아티아 자다르에서 2차 대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2차 대회 마지막 날인 21일 경기를 앞두고 그리고르 디미트로프(불가리아)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후 보르나 초리치(크로아티아), 빅토르 트로이츠키(세르비아)가 연달아 확진자로 분류됐다. 조코비치는 2차 대회 개막을 앞두고 디미트로프 등과 함께 농구 경기를 하는 등 21일 디미트로프의 확진 판정 이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회는 순수한 마음과 좋은 의도로 기획한 것”이라며 “감염 사례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조코비치는 8월 말과 9월 말에 각각 열리는 US오픈과 프랑스오픈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또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는 무릎 부상으로 2020시즌을 이미 마무리한 바 있어 앞으로 올해 메이저 대회나 ATP 투어 일정이 진행될 경우 조코비치,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 페더러의 남자 테니스 '빅3' 가운데 나달 혼자 코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LAL 우승 가도 빨간 불? 브래들리, 올랜도행 포기

LA 레이커스의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7월 말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 다시 열리는 2019-2020 시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레이커스의 우승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루키'에 따르면 ESPN은 전날 A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2019-2020 시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브래들리는 6월 중순부터 흑인 인권 시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재개 시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카이리 어빙, 드와이트 하워드 등도 의견을 함께 했다. 결국 브래들리의 선택은 올랜도행을 포기하는 것



▲ 2019-2020 시즌 참여 포기를 선언한 브래들리. 사진=루키 캡처

이었다. 브래들리는 가족의 안전과 흑인 인권 시위를 이유로 복귀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레이커스는 가드진에 큰 공백이 생겼다. 레이커스는 브래들리의 빈 자리를 메울 선수 영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ESPN은 레이커스가 브래들리의 대체자로 J.R. 스미스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래들리는 공수 겸장의 외곽 자원이자. 뛰어난 득점력과 돌파 능력을 지닌 JR 스미스. 큰 경기 경험도 많다. 레이커스는 현재 49승 14패로 서부지구 1위에 올라 있다. 브래들리는 데니 그린, 켈타비우스 칼드웰-포프와 더불어 올 시즌 레이커스의 가장 중요한 수비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